

다니엘서 - 제181번

한밤중의 외침과 로마의 예언적 역할: 다니엘서에서 말세를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4-11

다니엘서 11장 안에는 그 장의 마지막 여섯 절과 모두 일치하는 여러 예언의 노선이 있다. 마지막 때인 1989년으로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40절의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은 마지막 날들까지 봉함되어 있던 예언의 부분이다.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마치고 직전에 개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루는 다니엘의 상응 부분이다. 2절은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인 대통령인 트럼프를 소개하며, 그는 2015년에 자신의 출마를 선언했을 때 세계주의자들을 동요시키기 시작한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다. 10절은 1989년을 지목하고, 11절과 12절은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승리 및 그 뒤이은 몰락을 지목한다.

13절부터 15절은 40절의 세 전투 중 세 번째를 묘사하는데, 이는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에 맞서는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의 외적 투쟁을 상징하는 파니움 전투로 이어진다.

배도한 개신교가 득세하여,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실현될 삼중 연합의 위계적 관계를 확립한다. 그 짐승은 가톨릭이며, 그녀는 세 세력의 머리로서 이세벨과 수많은 다른 상징들로 묘사된다. 그녀는 짐승을 타고 군림하는 음녀다.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며, 그는 용의 열 겹 왕국의 머리인 그의 남편 아함으로 표상된다. 기원전 200년의 파니움 전투는 세계주의와 배도한 개신교 사이의 외적 투쟁을 예표한다. 내적 투쟁은 기원전 167년의 반란으로 표상되며, 이어서 기원전 164년에 하누카로 기념되는 성전 재봉헌이 뒤따랐고, 그 후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의 기간이 이어졌는데, 이는 미국이 "동맹"으로 표상되는 가톨릭의 정교연합의 형상을 세우는 것을 예표한다.

13절에서 유라이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라피아 전투로부터 14년 후, 프톨레마이오스는 '무절제와 방탕'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에피파네스가 뒤를 이었는데, 그때 그는 네다섯 살가량의 아이였다. 안티오쿠스는 같은 시기에 자기 나라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부 지역을 복종시키고 안정시킨 뒤, 어린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원정이든 나설 여유가 있었다." 푸틴의 잠시뿐인 승리가 끝나면, 트럼프는 새로 즉위한 어린 이집트 왕을 상대할 준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미국 내에서 '반란을 진압'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는 1798년의 외국인-치안법으로 대표되는 법률들을 시행하고, 내전에 대응해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인신보호영장 제도"를 정지시킬 것이다. 그의 행동은 또한 그랜트 대통령이 쿠 클럭스 클랜을 다룰 때 취한 조치들,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일본인과 다른 이들을 감금한 조치들, 그리고 나중의 조치 부시의 애국자법으로도 특징지어져 왔다.

그는 셀레우코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반란을 진압한 뒤 이집트의 "어린 왕"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마케도니아의 필립과 동맹을 맺을 것인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동시에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은 안티오쿠스와 동맹을 맺어 프톨레미의 영토를 그들 사이에서 나누기로 하였고,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우며 가장 편리한 부분을 차지하려 하였다. 여기에는 예언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남방의 왕에 맞서는 봉기가 있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예언이 의도한 바로 그 사건들이었다."

트럼프는 러시아 문제와 푸틴의 몰락으로 인한 여파를 해결하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NATO(국제연합)의 국가들과 굳건한 동맹을 형성할 것이다. 그때, 14절과 스미스의 주석에 따르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교황권은 러시아와 그 위성국들을 NATO와 미국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재할 것이며, 혹은 스미스의 주석이 인용하듯이, "로마가 말했다. 그러자 시리아와 마케도니아는 곧 그들의 꿈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이집트의 젊은 왕을 위하여 개입하였으며, 그가 안티오쿠스와 빌립이 꾀한 파멸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는 기원전 200년의 일이었다고, 시리아와 이집트의 사정에 대한 로마인들의 최초의 중요한 간섭들 가운데 하나였다."

두로의 음녀인 로마는 곧 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는데, 그 왕들이 불과 두 절 뒤에 그녀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되기 전에 그렇게 한다. 바로 그때 파니움 전투가 일어났다. 기원전 200년은 두로의 음녀가 노래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키며, 그녀는 미국과 유엔이 상호 이익을 위해 막 분할하기로 합의한 러시아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렇게 한다. 그 음녀가 둘 다를 제압하지만, 이어 파니움의 "전투"가 벌어지고 미국이 유엔을 이긴다.

상징적으로, 33년 후 모데인의 반란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상징적으로, 그로부터 3년 후, 이른바 개신교와 입헌 공화국의 재봉헌이 하누카로 표상된 바와 같이 확립된다. 상징적으로, 그로부터 3년 후, 유대인들이 로마와 맺은 동맹으로 표상되는 기간이 시작된다.

최종 전개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구절들에서 48년으로 표현된 역사는 예언이 1989년 종말의 때에 시작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일련의 급속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 뒤로 2014년의 11절과 12절의 두 번째 전투가 있었고, 이어 2015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로써 그는 세계주의를 선포하는 자신의 예언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진행 중인 내전을 진압하는 일을 트럼프가 시작하면, 그는 유엔(NATO-마케도니아의 필립)과의 동맹을 시도할 것이고, 로마는 노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동맹 시도는 파니움 전투로 표현되는 두 세력 간의 패권 다툼이 된다.

그러므로 파니움은 13절의 이정표이며, 그곳에서 일요법령에 앞서게 될 마지막의 급속한 움직임들이 시작된다.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세상 끝에 관해 더 많이 말했으며, 예수님은 물론 그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셨다. 일요법령을 예표하는 십자가(16절로 나타남)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파니움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머무신 시간과 그곳에서 가르치신 교훈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파니움 전투와 상응한다. 역사 내내 파니움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고, 그리스도 시대에 파니움의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였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의 한 마을에 이르렀다. 그들은 갈릴리의 경계를 벗어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 있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방인의 예배와 더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일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기를 바라셨다. 이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대중을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 더욱 전념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 하셨다. 그러나 먼저 홀로 물러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기도하셨다. 그들과 합류하신 뒤에도 전하고자 하시던 것을 곧바로 알리지는 않으셨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다가올 시련을 위해 강해지게 하시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의 기적을 보고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했다. 벳새다에서 먹을 것을 받은 무리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고자 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선지자로는 받아들하려 했지만,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마음이 찢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이들은, 요한이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하자 그의 사명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열렬히 기대하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러실 뜻이 없음을 알아차리자 그를 떠났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 어제는 칭송하고 오늘은 정죄하는 이들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구주를 참되게 따르는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주께서 왕의 영광을 받으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낮아지심 가운데서 그분을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반대와 왜곡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갈 길을 분명히 보지 못했다. 어려서 받은 훈련의 영향, 랍비들의 가르침, 전통의 권세가 여전히 그들의 진리에 대한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귀한 빛줄기가 그들에게 비쳤지만, 그들은 종종 그림자 속을 더듬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나 이날, 그들의 믿음이 큰 시험과 맞닥뜨리기 전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들 위에 임하셨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은 '보이는 것들'에서 돌이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고린도후서 4:18. 인간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알아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바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은 그의 자기 지혜나 선함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는 신적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옥보다 더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욥기 11:8. 오직 양자의 영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9, 10. '주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시편 25:14; 요한복음 6:45. 아, 진실로, '시몬 바요나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자기 주를 부인했을 때, 지옥의 문들이 그를 이겼다.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한 분 위에 세워졌다.

구주께서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다. 시편 기자는 '내 힘의 반석'을 노래했다.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로 한 돌을 두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한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고 기록했다. 신명기 32:4; 시편 62:7; 이사야 28:16. 베드로 자신도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이 예언을 예수께 적용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였다. 베드로전서 2:3-5, R. V.

"이미 놓여진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아무도 놓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3:11. "이 반석 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지성적 존재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지옥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있는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반석은 곧 그분 자신, 우리를 위해 깨지고 상하신 그분의 몸이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믿는 이들은 겨우 한 줌에 불과했고, 그들을 향해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의 모든 권세가 쏟아지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힘이신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그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다.

육천 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육천 년 동안 사탄의 진노의 홍수와 폭풍이 우리 구원의 반석을 내리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는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고백했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를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로 영예롭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거룩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것이며,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씀들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되는 조건을 밝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사역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향기이다. 그들의 사명은 영원한 결과가 걸려 있는 사명이다.

구주께서는 복음의 사업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시며 그 말씀을 교회에 직접 적용하셨다. 그리고 같은 취지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열두 제자에게도 주어졌다. 만일 예수께서 다른 이들보다 어느 한 제자에게 특별한 권위를 위임하셨더라면, 그들이 누가 더 큰가를 두고 그렇게 자주 다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가 택하신 이를 존중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머리로 세우는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또 스승이라 불리지도 말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23:8, 10.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구주의 발아래 모든 것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셨다. 고린도전서 11:3; 에베소서 1:22, 23.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으며, 머리가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신임을 받는 지위가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할 권위를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나님은 승인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라'고 선언하신다. 모두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잘못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어떤 유한한 존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임재이다. 이에 의지하면 가장 연약한 자도 든든할 수 있으며, 자신을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지 않는다면 가장 약한 자로 드러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그의 팔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5; 신명기 32:4; 시편 2:12.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 명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해도 그분의 성품이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그분은 자신을 구주로서 그들에게 드러내셨고, 그렇게 하여 그분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에 대한 참된 개념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세속적 군주로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오랫동안 당신의 뜻을 감추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언제까지나 빈곤과 무명의 상태에 머무르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가까웠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증오가 결코 극복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민족에게 배척당하시고, 기만자로 정죄되시며,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 곧 그러한 생각은 제자들이 한 번도 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놓인 투쟁을 제자들에게 열어 보이셔야만 하셨다. 그분은 그 시련을 내다보시며 슬퍼하셨다.” 시대의 소망, 411-415.

다니엘 11장 16절은 미국에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그 '지진'의 때 직전에, 14만 4천에 들고자 하는 이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들을 깨우는 것은 예언적 기별이다. 그때 두 부류가 드러나는데,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한 부류는 그릇에 기름이 있고 다른 부류는 없다.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은 일요일 법령에 앞서는 예언적 역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열 처녀의 비유의 문맥에서 '기름'에 해당하는 그 '기별'을 나타낸다. 그 기름은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큰 지진의 때에 기치로 높이 들려지기 위해 갖게 될 것이다. 이 연재 글들은 이제 모든 글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이 절들 속에 나타난 그 기별이 두 개의 금관을 통해 부여지는 황금 기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탄을 섬기는 한,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을 것이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실상을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스가랴서 3장과 4장, 그리고 4장 12-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개의 금관을 통하여 스스로 금빛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주님은 자원이 풍성하시다. 그분에게는 어떤 수단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 부족, 세속성, 헛된 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불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모여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인격에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며 만인 중 으뜸이신 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영혼이 허영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만족할 때, 주의 영은 그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근시안적 시야는 그림자만 보되, 그 너머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불들고 있는데, 그것은 풀려나 온 지면을 휩쓸고 달리려는 성난 말로 묘사되며,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간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둔하고 차갑고 죽은 상태에 머물 것인가? 오,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가 그분의 백성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자기 발로 서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협착하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협착한 문을 통과할 때, 그 넓음은 한계가 없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0, 217.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한때 덮는 그룹으로서 사탄에게 주어졌던 지위를 지니고 있다. 당신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신다. 금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이 깜박거리다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이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영의 기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 주고자 하시는 금기름을 거절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으라”는 부르심이 이를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품지 아니한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자기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선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간청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것이다. 금관들을 통하여 금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빛난다.” Review and Herald, July 20, 1897.